

# “군민이 체감하는 군정 추진”

### 박우정 고창군수, 올해 군정성과 보고회서... 생태도시 입지 다져

“민선 6기 고창군은 군민과 화합·협력하며 ‘이름답고 청정한 명품고창 건설’을 위해 힘껏 달려 지속가능한 성장 동력의 발판을 마련해 내실 있는 성과를 거두고 있으며 앞으로도 보다 철저한 실행과 사업 추진으로 군민이 체감하는 군정을 추진해 가겠다”

박우정 고창군수가 27일 군청 상황실에서 군정성과를 공유하고 소통하는 기자회견을 갖고 이같이 말했다.

민선 6기 고창군은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6만 인구를 군건하게 지키면서 대한민국 최초의 생물권보전지역 위상을 더욱 높이고 군민의 공감과 참여를 이끌어내면서 세계 최고의 자

연생태도시로서의 입지를 든든하게 구축했다.

주민이 체감하는 재난재해 예방과 주민 숙원사업으로 안전하고 편리한 생활환경을 마련하면서 모든 계층이 골고루 혜택을 받는 복지지원체계를 확립했다.

특히 성송-고창간 23호 국도 확·포장 공사(423억)가 내년 중 완공 예정이며, 고창-내장간 지방도확포장공사(888억), 국도22호선도로공사(삼인-공산)(472억), 도계-장성국지도(15호) 건설공사(389억) 등을 추진할 수 있는 국가예산을 확보하면서 사통팔달의 물류와 유통, 관광 요충지로 도약할 수 있는 기반을 다졌다.

또한 유네스코 생물권보전지역이자

세계유산 고창고인돌유적, 인류무형 문화유산인 판소리과 고창농악 지원 등을 풍부하게 보유한 고창군은 이를 활용한 관광 인프라 구축에도 적극 노력했으며 고창갯벌을 세계자연유산으로 등재하고 국가지질공원 인증을 위한 추진에도 계속해서 만전을 기해 명실상부한 세계유산도시로 나가는 복안이다.

이와 함께 고창군 대표관광지인 고창읍성에 조성되고 있는 ‘자연마당’과 무장현 관아와 읍성을 비롯한 구시포·포호해수욕장 등 풍부한 관광자원을 연계·결합해 찾아오고 싶고 와서 오래도록 머무르고 싶은 고창을 만들어 나갈 계획이다.

고창=김영식 기자

# 임실군, 운암 국사봉 해맞이축제 취소

### AI 확산세 전파 우려 판단·추가 확산 차단 위해

임실군은 최근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AI)가 전국으로 확산됨에 따라 오는 2017년 1월 1일 개최 예정이던 ‘제9회 운암 국사봉 해맞이축제’를 취소한다고 밝혔다.

이번 취소 결정은 지난 22일 농림축산식품부가 방역단체를 ‘경계’에서

최고단계인 ‘심각’으로 격상한 데 따른 것으로서, 군은 AI 확산세가 지속되는 현 상황에서 많은 인파가 참여하는 축제를 통해 전파될 우려가 있다고 판단, 추가 확산을 차단하고 조기 종식을 위해 취소 결정을 내렸다.

군 관계자는 “관내에서 AI가 발생된

것은 아니지만, 현재 전국적인 AI 확산 추세를 고려해 추가 확산을 막기 위한 조치인 만큼 축제에 많은 관심과 성원을 준 모든 분들께 협조를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한편 군은 지난 16일부터 삼인 군수를 본부장으로 12개 실무반을 편성해 ‘재난안전대책본부’를 본격 운영하는 등 AI 총력 대응체계를 구축하고 있다.

임실=진홍영 기자

# 완주군, 애향장학금 대폭 확대

완주군이 지역인재 양성 및 고등학교 활성화를 위해 2017년부터 애향장학금에 대한 지원을 대폭 확대한다.

27일 군은 완주군 인재육성재단(이사장 박성일 완주군수) 정기이사회를 열고, 지역내 우수학생 여의 유출 방지 및 인재양성을 위한 장학금을 확대하기로 의결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2017년부터 우수한 성적을 가진 중학교 졸업생이 지역내 고

등학교로 진학할 경우, 연차적으로 500만원의 장학금이 지급된다.

입학 첫 해에 우선 300만원이 지급되고, 2~3학년에 상위권 성적이 유지되면 추가적으로 연 100만원의 혜택을 받을 수 있다.

특히 지역내 고등학교를 졸업한 학생이 서울대를 비롯한 연·고대, 포항공대 등 상위권 대학에 진학할 경우, 1000만원이 지원될 예정이다.

장학금 신청 및 접수는 내년 3월초에서 중순까지며, 주소지 읍·면사무소나 완주군 인재육성재단에 문의 또는 방문에 서류 접수하면 된다.

박성일 군수는 “2017년도 완주군 중학생의 지역내 고등학교 진학률은 74.9%로, 전년의 40.1%에 비해 크게 높아질 정도로, 인재양성 효과가 구현되고 있다”며 “장학금 대폭 상향 및 다양한 사업을 통해 지역의 미래가 건설해지고 밝아지게 하는 주역이 많아지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완주=이종복기자

# 진안군, 식품안전관리 분야 우수기관 표창

### 4년 연속 기관표창 쾌거

진안군은 2016년도 전북도 식품안전관리 분야에서 우수기관으로 선정됐다.

이번 식품안전관리 분야 평가항목은 안전관리 인프라, 기초 위생관리 중

식품접객업소 지도 점검 및 적발률, 소비자식품위생감시원 위촉·활동 지수 등이 포함되었다.

또한 활동시책으로 식중독예방 교육·홍보실적, 유통식품 부정불량식품 근절을 위한 식품수거검사 등 3개 분

야 11개 지표 심사 평가를 거쳐 종합한 것으로 우리군은 4년 연속 기관표창을 받는 쾌거를 이뤘다.

이창호 군수는 “앞으로도 식품접객업소에 대해 식중독예방을 위한 손씻기, 식품 등의 위생적 취급기준에 대해 지도점검을 지속적으로 실시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진안=우태민 기자



# 고창군, 이웃돕기 열기 ‘활활’

### 심원면 등 성금 300만원·20Kg 백미 43포 등 기탁

고창군민들의 어려운 이웃을 위한 나눔 실천 열기가 뜨겁다.

심원면에 소재한 농업회사법인 국순당 고창명주(대표 김영동)은 27일 어려운 이웃을 위해 쌀 43포를 기탁했다. 이 성금은 전북사회복지공동모금회와 연계해 면내 저소득층에 전달됐다.

무장면에 소재한 대한수교장로회 무장교회(목사 김진호)는 지역 내 어려운 이웃들에게 전달해 달라며 20Kg 백미 43포를 무장면에 기탁했다.

기탁 받은 쌀은 무장면 복지이장과 지역사회보장협의체위원장 등의 추천을 받아 홀로 어르신과 중증 장애인세대 등 소외계층에게 전달됐다.

한빛원자력본부는 상하면 경로당 31개소에 1200여만원 상당의 20Kg 백미 279포를, 저소득계층을 위해 450여만원 상당의 전기매트를 상하면에 기증했다.

상하면체육회에서 성금 100만원

을, 상하면이장단에서 성금 100만원, 상하면청년회에서 성금 50만원을, 상하면용소방대에서 성금 30만원을, 상하면 출신 김철래 씨는 성금 25만원을 각각 상하면에 기탁했다.

성송면에서도 어려운 이웃을 위한 온정 나눔이 이어져 성송교회(목사 박헌배)에서 성도들이 십시일반 모은 209만원을, 대성농협본점에 재직하는 박윤규 과장은 성금 30만원을 기탁했으며 계당리 신용마을 정기정 이장은 140만원 상당의 20Kg 백미 40포를, 정종필씨도 어려운 이웃을 위해 130만원 상당의 20Kg 백미 37포를 기탁했다.

신림면 무림리가 고향인 재외국민 이인섭 씨는 홀로 어르신들을 위해 쌀 200만원 상당을 기탁했다.

해리면 주민자치위원회(위원장 강형철)도 성금 100만원을 해리면에 기탁했다. 전달받은 성금은 면내 소외계층의 난방비 지원에 사용될 예정이다. /고창=김영식 기자

# 남원시, 청소년수련관 건립 착공

### 남원시, 청소년수련관 건립 착공

남원시는 동충동 231-1번지 구)시청사 부지에 청소년을 위한 교육·문화·복지 공간인 남원시 청소년수련관 건립 공사를 12월말 착공하여 2018년 6월 준공을 목표로 하고 있다고 밝혔다.

남원시 청소년수련관은 총사업비 60억원을 투자하여 지상3층, 연면적 2,610㎡ 규모로 체육활동장, 실내집회장, 북카페, 댄스연습실, 밴드연습실, 자치활동실, 프로그램실 등 청소년을 위한 공간으로 구상될 계획이다.

남원시는 그동안 방과 후 청소년들이 건전한 여가와 문화·학습활동을 자유롭게 영위할 수 있는 공간이 매우 부족한 상황이었다.

이번 청소년수련관 건립을 통해 청소년을 위한 양질의 시설 및 다양한 휴식공간과 더불어 각종 프로그램을 제공하여 문화적으로 소외 낙후된 지역 청소년들의 욕구를 해소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수련관이 건립되는 부지는 구)시청사 부지로 도심 중앙에 위치하여 접근성과 주변환경 등을 고려했을 때 청소년이 이용하는 데 최적의 입지조건과 활용성을 자랑할 것으로 보인다.

남원=유영철 기자



# 임실일도협의회, 애향장학금 전달

임실일도협의회(회장 양만훈) 회원들이 연말연시를 앞두고 사랑의 애향장학금을 전달해 지역사랑을 몸소 실천하고 있다.

27일 임실읍사무소를 찾은 양만훈 회장과 회원 20여명은 어려운 환경에서도 희망을 키우는 모범학생에게 전해 달라며 사랑의 애향장학금 500만원을 전달했다.

양만훈 회장은 “학생들에게 장학금의 의미보다 칭찬과 격려로 희망과 용기를 북돋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며, “지속적으로 장학금을 전달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정회석 회장은 “고향 후배들에게 이런 따뜻한 사랑을 베풀어 주심에 감사드린다.”며,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꿈과 희망을 잃지 않고 학업에 정진하는 모범학생을 선별해 전달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임실일도협의회는 임실읍을 사랑하는 자진들이 모여 임실읍을 위해 봉사활동을 펼치는 단체로서, 이번엔 전달된 장학금도 회원들이 자발적으로 뜻을 모아 마련했다. /임실=진홍영 기자

# 향토방위 앞장선 윤덕현 대대장, 육군본부로 영전

제7733부대 2대 대장으로 향토방위와 지역발전을 위해 힘써온 윤덕현 대대장이 지난 26일 2년간의 임기를 마치고 육군본부 정보보화전투발전장교로 자리를 옮겼다.

지난 1996년 임관한 윤덕현 중령은 이라크 12여년 민사처(심리전 장교), 55사단 기동대대(작전장교), 12사단 52연대(작전과장), 12사단 인사참모처(인사계획장교), 1군 인사참모처 인사보임과(보임장교), 35사단 인사참모처

(인사참모) 등의 주요 직책을 두루 역임하다 지난 2014년 12월 제7733부대 2대대장으로 부임했다.

‘위국헌신 군인본분’(나라를 위해 몸을 바침은 군인의 본분이다)을 좌우명으로 삼은 바 성실히 근무를 수행한 윤 중령은 그동안 장관급 표창 3회, 육군대장급 표창 6회, 참모총장급 표창 1회 등을 수상하는 등 우수한 능력을 인정받았다.

특히, 2대대장으로 재임 시 ‘UFC연습단’ 책임지역 우수기관 선정, ‘통합방위업무 유공 작전사령관 표창’ 등을 수상했으며, 통합방위체계를 확립하고 향토방위에 최선을 다했다.

임실=진홍영 기자

# 제이앤제이그래픽

간판, 현수막, 표찰, 현황판, 실사출력전문,  
안전용품, 가구, 커튼, 차량랩핑

Tel. 063-633-1201  
Fax. 063-633-1203  
e-mail . 6331201@hanmail.net



# 남원드림스타트, 입학 전 교육 진행

남원시 드림스타트에서는 2017년 초등학교에 입학하는 드림스타트 아동 28명을 대상으로 지난 26일 ‘입학을 축하해!’ 프로그램을 실시하였다.

이번 프로그램은 부모에게 입학 전 준비를 위한 교육을 진행하고, 아동들이 하여금 입학 전 긴장감을 완화시키기 위해서 마련되었으며, 그 일환으로 마술쇼와 비행기 만들기 등을 진행하였다. 또한, 경제적 여건으로 입학에 어려움이 없도록 학용품과 가방 등을 전달하며 축하의 자리를 가졌다.

남원시 여성가족과장 하두수는 “아동에게 있어서 새로운 출발을 의미하는 초등학교 입학은 상당히 중요한 일이다. 경제적 여건과 환경으로 인해 아동이 새로운 출발을 하는데 어려움을 겪고 자신감을 잃어서는 안 된다.”라며, “모든 아동의 공평한 출발기회를 보장하고 행복한 사회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 라고 말했다. /남원=유영철 기자